

#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 대선후보 슬로건 확정...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대선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기 위한 각자 자신의 정치이념에 부합한 슬로건을 확정했다.

슬로건에는 후보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 함축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포스터와 각 캠프의 홍보물, TV·인쇄 광고, 거리 홍보물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된 국가 역할 정립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촛불민심’ 사이에서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며 “이에 화답하는 의미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구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한 이회창 후보의 슬로건 ‘나라다운 나라’와 문 후보의 슬로건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는 복지·배려·민주 등 세 가지 가치를 담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을 치른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종 검토를 거쳐 19일까지 슬로건과 공식 포스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철수=안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로 슬로건을 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 최순실 같은 숨은 실세가 국정과 행위를 해도 결국은 국민이 이긴다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 유승민 ‘보수의 새 희망’

###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어 “결국 국민 전체가 승리할 것이라는 뜻에서 ‘국민이 이긴다’를 썼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 역시 19일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슬로건과 포스터를 확정,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보수 진영 후보들도 강력한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의 균형을 노리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8일 출마 선언부터 강조해온 ‘서민대통령’을 다시 꺼내들었다. 공식 슬로건은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다. 후보 자신이 말바닥에서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취지다.

국민 대다수가 서민인 만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캠프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와 서민의 매치 효과를 통해 과거의 어려움을 불러일으켜 보수층의 향수를 자극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을 슬로건으로 세웠다. 건전하고 따뜻한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는 차별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함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도 구호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능한 경제 전문가이자 개혁가인 유 후보의 이



대선후보들 “세월호 진실 꼭 밝히겠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에서 대선 후보들이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전명선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연합뉴스

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그동안 ‘노동의 가치를 국정 기조로 삼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심 후보의 슬로건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다.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편견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거침없는 대개혁”,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도 슬로건으로 함께 사용하며 노동계와 서민 층의 지지를 모으려는 전략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文, ‘취약지’ 대구서...安, 인천·광주서 선거운동 시작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의 지역 표심 공략도 본격화했다.

우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17일 대구를 찾은 것으로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대구에서 대선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이 당의 불모지인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통합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당 지도부는 광주에서 첫 선거운동을 벌인다. 문 후보와 지도부가 역할을 분담해 영·호남에서 ‘쌍끌이’로 선거운동을 시작,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적 지지를 받는 ‘통합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같은 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당 전체가 결집하는 총력 유세를 벌인 뒤, 다음 날인 18일 제주로 이동, 4.3 추모비를 참배한다. 문 후보는 이후, 전주역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유세를 벌일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이 개시되는 17일 0시 첫 선거운동으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하는 등 서해안을 따라 강행군에 나선다. 안 후보는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국민 안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어 전주, 전남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광주에 들러 평동산단, 양동시장 등지를 찾아 민생경제 행보를 한 뒤 금남로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난다.

순학규 상임 선대위원장은 17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

장은 광주 선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서민대통령’을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가락동 수산시장 등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곳을 첫 유세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17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갖는다. 이는 안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7일 대선 첫 일정으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속차량기지에서 시작한다. 심 후보는 이날 기지에서 정소를 담당하는 종로영 여성 노동자들과 검수고의 비정규직 정비 노동자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정취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트럼프와 정상회담”

###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

### “전쟁 안된다 뜻 관철해야”

### “호남 균형발전 모델 만들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5월10일 취임식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서만 하고 바로 일을 시작, 외교와 안보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광주일보 등 한국 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대선후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특사로 부탁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 틀을 미리 닦게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선제 타격 등 여러 옵션을 꺼내놓고 검토하고 있다. 절대 전쟁은 안 된다”는 우리의 뜻을 빨리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안짜박’(안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왕이 된다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국민이 상왕이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일 없다. 전 모든 생각과 행동 중심에 국민만 있다”며 “전에는 안철수는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었다. 내거티브도 일관성 있어야지...”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광주·전남의 미래 프로젝트로 공약한 미래자동차산업, 국가우주산업 거점 육성,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조

성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산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 및 지속가능성, 기존의 인적·물적·산업인프라 활용 및 지원 등을 얘기했고 이 원칙하에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호남 인사-예산 소외’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호남의 인사차별, 예산차별 타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호남의 기업을 육성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비한 산업을 키워서 ‘실망나는 호남, 사람이 찾아오는 호남’으로 만들겠다. 호남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선후보 역대 최다 15명 등록...원내정당 6명, 원외·무소속 9명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16일 마감됐다.

군소주자로는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후보 등 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어 마감일인 이날 오후 통일한국당 남

재준 후보,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등 2명이 추가 등록해 총 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선거법상 원내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가 우선순위를 받고, 이 중 의석수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6번으로 결정됐다.

이어 원내정당 후보들은 정당명의 가나

다순으로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9번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이고,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15번을 배정받았다. /연합뉴스

**MEVIUS V1 수퍼슬림 LSS**

담배 판매 가격 변경 공고

| 제품명  | 가격     | 함량                     |
|--|--------|------------------------|
| 메비우스 엘에스에스 V1 수퍼슬림 (MEVIUS LSS V1 SUPERSLIM) | 4,500원 | 타르 1.0mg<br>니코틴 0.10mg |

판매개시일 : 2017년 4월 17일

이 공고는 담배사업법 18조 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 2항 및 3항에 의거한 제조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

**2017 보성 차음식만들기 경연대회**

2017. 5. 7(일) 11:00~15:00  
한국차문화공원(보성군)

참가신청 |

- 부문별 각 10팀, 총 30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경연종목
  - 차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variation food)
  - 차를 이용한 간편한 세트 메뉴 (tea brunch)
- 시상내역
 

| 구분      | 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
| 대상(1명)  | 한인도 교육문화원 | 보성  | 보성 200만원 |
| 우수상(2명) | 보성교육청     | 보성  | 보성 100만원 |
| 우수상(2명) | 보성교육청     | 보성  | 보성 100만원 |
| 입상(2명)  | 보성교육청     | 보성  | 보성 50만원  |
- 신청기간 : 2017. 4. 10 ~ 4. 30. 18:00시까지(24시간)
- 신청처 : 참가신청서(서식), 레시피서식, 신분증/통정사본(서식)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 E-mail 접수
- 문의처 : (사)아시아차문화연구원 (062-974-9103)

주최 보성차생산자조합, 보성차향대추제추진위원회  
주관 (사)아시아차문화연구원  
후원 보성군